

**[온누리회복축제]**  
**저녁집회 1 - 중독과 하나님의 은혜**

첫째날 | 치유 | Archibald Hart / 2005 / 페이지수: 3

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회복 원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회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.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중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원천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

**중독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**

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.

“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.”

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제 마음에 넣어둡니다. 회복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독에 주는 회복을 향한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.

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. “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.”

제가 마약, 성 등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만나 치료할 때마다 내 놓는 말씀이 이것입니다.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족합니다. 하나님께 온 마음을 내어 받으십시오. 오늘 저녁 제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.

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중독을 극복하도록 돕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중독에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중독에서 차단하고 예방하도록 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첫째,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. 인터넷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모든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순수하고 정직하게 만드십니다.

둘째, 하나님의 은혜는 송고한 정신을 갖게 합니다. 그 종류가 무엇이든 어딘가에 중독되면 부끄러움의 감정이 생깁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회복을 향하게 합니다.

셋째, 하나님으로 인해 책임감을 갖게 하십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게 하십니다. 넷째,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.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.

### **은혜를 거절하는 이유**

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왜 그 은혜를 거절할까요?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?

중독자는 우선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을 거절하는 단계에 까지 이릅니다.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첫째는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우리안의 돼지처럼 우리 밖을 보지 못합니다. 둘째는 그 쾌감으로 돌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. 껌연가는 담배를 끄고 재떨이에 버린 직후 그 다음에 어디서 담배와 같은 쾌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중독으로부터 받는 기쁨보다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셋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. 저 역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거울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 안에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하실까 두렵습니다.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회복된 후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. 모든 중독 뒤에는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.

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.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속의 어두운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않습니다.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은 채 작은 손전등으로 내 삶의 한 곳을 비춰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통해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솔직해 질 수 있습니다. 하나님과 함께라면 자기 내면의 깊은 곳 까지 갈 수 있습니다.

### **하나님께 소망을 두라**

중독을 거친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. 첫째, 무력감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무력감도 덮어 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곳에도 임합니다. 우리는 그 무력감을 경험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그 중독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길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. 중독에서

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포기하시는 분들,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신 적이 있습니까? 하나님의 은혜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

둘째, 절망입니다. 무력감의 발전단계이기도 한 절망적인 마음 상태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.

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

“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.”

바로 이 영혼의 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.

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 ‘소망’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.

하나는 ‘바람’입니다.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. 다른 하나는 오래된 뜻으로 ‘신뢰’라는 의미입니다.

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후자의 뜻입니다.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‘바람’이 아니라 확실히 ‘신뢰’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여러분의 소망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?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. 우리 삶에는 불분명한 확신들이 여전히 있습니다. 마우스를 가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클릭한 후 그것을 끌고 와서 여러분 삶의 불확실한 곳에 덮어씌우십시오.

하나님께서서는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. “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”(히 13:5)는 약속을 믿습니다.

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, 버려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. 우리가 소망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의 중독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의거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.

/ 정리 최문경 기자 pink1969@onnuri.or.kr

**\* 출처 : 온누리신문**